

유발 하라리(1976-)와 붓다(BC 5세기): 욕망, 감정, 자유의 문제

허우성 경희대 철학과 명예교수

I. 유발 하라리(1976-)의 불교와의 인연



(S. N. Goenka, 1924-2013)

하라리는 2000년 고엔카를 만나고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김병주 옮김, 2015)를 그에게 바쳤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전병근 옮김, 2018)의 마지막 장 ‘명상: 그저 관찰만 하시오.’(Meditation: Just Observe)를 읽어 보면, 불교와의 인연은 아주 오래고 깊어 보입니다.

고통에 지극히 예민한 청년

‘명상’이란 장에서 하라리는 침대에 ‘세상과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지’라는 질문을 품었다고 함. 자신이 여태 책에서 얻은 것은 모두 정교한 허구로 보았다. 신과 천국에 대한 종교적 신화, 조국과 국가의 역사적 사명에 관한 민족주의 신화, 경제성장과 어떤 구매와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해 줄지에 관한 자본주의 신화가 포함; 이런 것들이 허구라는 것은 알지만 무엇이 진실(truth)인지는 모르겠다. 지극히 답답했다. 그러다가 2000년 4월, 스물 넷에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친구의 소개로 Vipassanā(विविषयना, Vipasyanā) 수련회에 갔다. 그 과정에서 교사였던 버마-인도인 고엔카를 버마에서 만남.

고엔카는 유발에게 Vipassana meditation(觀法)을 가르침.

2500년 전 고타마 붓다가 재발견한 것.

1) 하루 두 시간 호흡명상數息觀;

2) 매년 한 두 달-묵언 등의 불교 수행

“이런 수행이 얻는 집중력과 明淨함이 없었다면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21세기, p. 473) 과학과의 갈등 없었다. “수행이란 몸의 감각(body sensations)과 감각에 대한 정신적 반응(mental reactions)을 철저하게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관찰하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기본 패턴을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21》 477).

숨을 길게 들이쉴 때는 나는 이제 숨을 길게 들이쉴다고 알아차린다.

숨을 길게 내쉴 때는, 나는 숨을 길게 내쉴다고 알아차린다.

숨을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이제 숨을 짧게 들이쉴다고 알아차린다.

숨을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숨을 짧게 내쉴다고 알아차린다.

“내가 숨 쉬는 것을 관찰하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나는 내 마음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으며 그것을 통제할 능력도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내 숨이 콧속을 드나드는 것의 실체를 관찰하다 보면 10초도 지나지 않아 마음이 흩어져서 방황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라는 개인 브랜드는 CEO라는 인상 속에서 살았다. . 나는 CEO가 아니었다. 고작 문지기.

나중 과정이 진행되면서 호흡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감각(sensations)을 관찰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행복감이나 황홀경 같은 특별한 느낌이 아니라, 열, 압력, 통증(고통, pain) 같은 가장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감각을 관찰함.

유발 자신의 분노에 대한 언급이 좋은 사례

스물 네 살 수련회 참석 전까지 분노를 1만 번은 경험했을 것이다. . . . 화가 날 때마다 분노의 감각적 실체(sensory reality of anger)보다 분노의 대상-누군가 한 일이나 말-에만 집중했다.(《21》 472) 화가 나면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더워진다.

여기까지는 보통 명상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

놀라운 것은 호흡명상에 근거해서 실재(實相) vs. 허구 (지극히 중요함)

실재: 관찰된 감각임.

허구: 기독교의 신, 알라, 국가, 달러, 민족주의, 자유주의 이야기 등등

(우리가 뇌 안에서 만들어 낸 것.)

“내 감각을 관찰하면서 . . . 어떤 이야기, 이론, 신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다. 실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만 하면 됐다. 내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괴로움의 가장 깊은 원천은 내 자신의 마음 패턴(patterns of my own mind)에 있더라. 내가 뭔가를 바라는데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求不得苦) 괴로움은 외부 세계의 객관적 조건이 아님, 내 자신의 마음이 일으키는 심적 반응(mental reaction)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괴로움의 발생을 그치는 첫 걸음이다.

《21》 472-73) 붓다의 四聖諦, 고집멸도 중 고제

하라리는 고통에 아주 예민함: 자비의 역사관

영국의 쿡 선장이 호주토착민에게 가한 고통,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게 가한 고통, 인간이 동물에 가한 고통 등을 기술함. 물론 사피엔스가 스스로에게 주는 고통도 수시로 언급.

실재의 판별 기준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실재인지 허구인지 알고 싶다면, ‘그것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민족, 국가, 기업, 돈 모두 허구입니다. 왜냐면 이것들은 아무 것도 경험할 수 없다. (고통을 느낄 수 없다.) 민족주의는 허구다. 반면에, 민족주의를 믿고 전투에서 상처를 입은 병사는 고통을 느낌.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으면 고통을 느낀다. 소도 도축당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인간과 동물은 실재/실체다.

(《21》 484)

《사피엔스》(조현욱 옮김, 2015)는 이렇게 불교를 요약함

“불교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중생)은 행복을 즐거운 느낌/감정 pleasant feelings과, 괴로움을 불쾌한 느낌과 동일시한다. 문제는 우리의 느낌이 순간적 요동(fleeting vibrations)에 불과함 . . 불교에서 괴로움의 근원은 통증(고통, pain)이나 슬픔에 있지 않다. . . 순간적인 느낌을 무의미하게 끝없이 추구하는 데 있다.

(《사피》 557-8)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모든 느낌이 무상하다(impermanent)는 속성을 이해하고 갈망을 멈추는 것. 이것이 불교 명상의 목표다. . . . 그러면 마음은 느긋해지고, 맑고, 만족스러워진다. 당신이 특정한 느낌에 대한 추구를 멈추면 어떤 느낌 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 .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그 결과

완전한 평정(serenity)을 얻게 된다.”(《사피》 558, 번역 일부 수정), 니르바나

붓다의 행복과 자유주의적 문화와의 충돌

“현대의 자유주의적 문화의 입장에서 불교 사상은 너무나 낮설었다. 그래서 서구의 뉴에이지 운동은 불교의 통찰을 처음 대했을 때 이를 자유주의적 용어로 바꿔버렸다. 즉 ‘행복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붓다의 통찰: 진정한 행복은 주관적 내적 느낌(subjective feeling)과도 무관; 붓다가 원하는 것은 외적 성취의 추구뿐 아니라 내 내면의 느낌(inner feeling)에 대한 추구 역시 중단하는 것이다.

행복을 얻는 비결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알아야 한다. . .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느낌, 생각, 호불호를 자신과 동일시함. 이는 잘못이다. (《사피》 559-560)

분노가 자신이 아니듯, 다른 감정도 자신이 아님.

이런 진실을 누가 더 잘 알고 있나?

현대인이 고대의 수렵채집인이나 중세의 농부에 비해 더 잘 아는가? 아니다.

“대부분의 역사서는 위대한 사상가의 생각, 전사의 용맹, 성자의 자선, 예술가의 창의성, 제국의 흥망, 기술의 발견과 확산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개인들의 행복과 괴로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역사 이해에 남아 있는 가장 큰 공백(lacuna)이다” 이를 채워나가자. (《사피》 560)

행복(sukha)과 괴로움(dukkha)을 역사의 중심에 놓는 태도

하라리는 신사적 polite

민족주의라는 신화를 비판하면서 자기 민족을 먼저 비판

“유대인이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이며 인류의 도덕성과 영성, 학습의 궁극적인 원천”이라는 믿고 있는 일을 비판함. (《21》 274)

서양문명 비판함

공자와 노자, 마하비라와 함께 붓다도 “바울과 예수보다 훨씬 전에, 가나안 땅이나 이스라엘 선지자는 알지도 못할 때 이미 보편 도덕률을 세웠다. . . . 따라서 유대교와 그 자손인 기독교인과 무슬림에게 인간의 도덕을 창조한 공을 돌리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21》 285), 서양중심 윤리학 문제가 있다.

II. 유발 하라리의 인류사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프리카에서 살던 별 볼 일 없던 영장류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 행성을 지배하게 되었나?”이다.

대답: 수렵채취시대부터 21세기까지 사피엔스가 지구 최대의 승자(그래서 공격자)가 된 이유는 스토리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이다.

인류의 역사 진로가 세 개의 혁명으로 형성되었다고 봄.

1. 인지혁명cognitive revolution: 7만 년 전부터 3만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
교방식과 의사소통 방식; 사피엔스가 침팬지와 다른 이유
2. 농업혁명 12,000년 전
3. 과학혁명 5백 년 전)

생명의 역사는 30억 년, 인류의 역사는 30만년 정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혁명, 이 혁명이 가능한 이유는 사피엔스가 사용하는 언어의 유연성으로 허구를 말할 수 있기 때문. 인지 혁명 이전에는 “조심해, 사자야” 정도인데 이제는 “사자는 우리 종족의 수호령이다.”

‘조심해 사자야’ 정도는 녹색원숭이의 울음소리로 표시할 수 있지만 ‘사자는 우리 종족의 수호령이다’는 사피엔스만 가능.

세 가지의 실재가 있다고 주장함.

《호모데우스 : 미래의 역사》에서 세 가지 실재론을 제시

1 객관적 실재(reality): 나무, 강, 사자

중력: 뉴턴이 발견하기 전에도 존재

2 주관적 실재: 내 개인적 믿음과 느낌(feelings)에 의존; 두통과 두려움

심한 두통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검사해도 원인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두통은 나에게 실재함, 두려움도 같다.

3. 상호주관적 실체들 intersubjective entities: 가상의 실재 imagined reality

신, 천국, 돈, 국가, 법인(기업) “여러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신뢰(trust),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에 의존한다.” (《호데》 218 이하),

늑대와 침팬지와 같은 동물들에게는 1, 2만 존재, 제3의 실재는 없음. 원숭이를 설득하여 지금 우리에게 바나나 한 개를 준다면 죽은 뒤 천국에서 무한히 많은 바나나를 갖게 될 거라고 믿게끔 만드는 일은 불가능함.”(《사피》 48-49)

“허구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의 창세기, 현대 국가의 민족주의 신화와 같은 공통의 신화들을 짜낼 수 있다. 그런 신화 덕분에 사피엔스는 많은 숫자가 모여 유연하게 협력하는 유례없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 . .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사피》 49)

신화는 사람들의 집단적 상상(collective imagination)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런 상상력이 없다면 현대 국가, 중세 교회, 고대 도시, 원시부족, 우주의 신도, 돈도,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다.

“우리는 ‘원시인’들이 유행과 정령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보름달이 뜰 때마다 불주위에 모여 함께 춤을 춤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강화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한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현대의 사회제도들이 정확히 그런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사피》 53-4).

강, 나무, 사자라는 객관적 실재 objective reality,

신, 국가, 법인이라는 가상의 실재 imagined reality

가상의 실재는 점점 더 강력해짐; 오늘날 강과 나무와 사자의 생존이 미국이나 구글 같은 가상의 실재들의 자비에 의존.”(《사피》 60). 지구온난화 등



허구의 존재에는 어떤 것이 있나?

1. 이집트 파라오

“생물학적 파라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나일 강 유역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수백만 이집트인이 공유한 이야기들 속에 존재한 상상의 파라오였다.”(《호데》 222)

파라오와 그의 수호신 소백은 나일강의 수위를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상상의 실체들이었으나, 수백만 명이 파라오와 소백을 믿고 힘을 합쳐 댐을 짓고 운하를 파자 마침내 홍수와 가뭄이 줄었다.”(《호데》 227-8)

“허구는 인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서 관개시설도 만들고 피라미드도 건축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진보인가?

“하지만 그것이 진정 중요한가? 고대 이집트 농부들이 과연 수렵채집인 조상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나은 사회관계를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영양, 건강, 아동 사망률 측면에서 더 나빠졌던 것 같다. 파라오가 통치하는 이집트는 당대에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지만, 평범한 농부에게 그 힘은 병원과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세금과 강제노동을 의미했을 뿐이다.” (《호데》 244)

이는 이집트, 중국 왕조들, 이슬람 제국들에서도 마찬가지. 1850년도 보통 사람의 삶은 원시시대 수렵채집인들의 삶보다 더 나빴던 것 같다고 주장.

허구는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허구는 꼭 필요하다.

돈, 국가, 기업 같은 허구적 실체 없다면 인간사회가 불가능

이야기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허구/이야기가 목표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국익을 보호하려고’ 전쟁을 시작한다. 기업, 돈, 국가는 우리의 상상에만 존재한다. 그런데 왜 그것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는가? (《호데》 246-7)

2. 신은 허구다

1187년 살라딘(1138?-1193)은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정복함. 교황 그레고리오 8세(1100-1187)는 성지회복을 위해 제3차 십자군 원정에 착수했음;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믿고 잉글랜드 청년 존은 참전했다.

이교도는 사악한 적.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은 신의 의지, 이를 위해 싸우다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 조상, 이웃도 이런 이야기를 믿음.(《호데》 209-210) 존이 놀란 것은 무슬림 역시 신의 의지에 복종하고, 전쟁에서 죽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

“이런 식으로 중세문명은 촘촘하게 엮은 의미의 그물망에 그의 동시대인을 파리처럼 가두었다.”(《호데》 210) 동시대인들에게는 이진 스토리가 아니라 진리.

이제는 아니다. 천국도, 천국 간다는 영혼도 없다.(《호데》 208 이하)



3. 자동차 회사 푸조

푸조에 대한 설명은 삼성이나 국내 은행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

푸조(Peugeot): 유럽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자동차 회사, 프랑스에 기반을 둔 자동차 제조업체. 2008년 푸조는 150만대 이상의 자동차 생산. 푸조는 처음에는 가족 기업으로 시작, 오늘날에는 세계 곳곳에서 20만 명을 고용함. 대부분 서로 모른다.

푸조는 우리의 집단적인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figment)이다. 변호사들은 법적인 허구(legal fiction)로 부른다. 손으로 가리킬 수는 없다. 하지만 법적인 실체(legal entity)로서는 존재함. 상호신뢰에 의해서만 존재

4. 보편적 질서를 만든 세 가지 허구: 세계를 하나로 만들

1) 제국

“역사에는 정의가 없다.”라는 말이 아주 인상적

제국은 지난 2500년간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정치조직이었고(《사피》 275). 그 특징은 문화적 다양성과 영토의 탄력성이다.

로마제국, 페르시아 제국, 인도의 마우리아 제국, 중국, 영국, 미국 제국까지 논함.

From ‘we and they’ To ‘when they become Us’-- 새로운 제국관

“진화 덕분에 호모 사피엔스는 인간을 본능적으로 ‘우리’와 ‘그들’의 두 부류로 나눈다. 우리란 너와 나, 언어와 종교와 관습이 같은 사람들을 말한다. . . .

[자애로운 제국관, benevolent imperial vision]

이런 인종적 배타성과 대조적으로 (기원전 550년 경 페르시아인) 키루스 대왕 이래 제국의 이데올로기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all-encompassing) 경향이 있었다. 물론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일이 흔히 있었지만, 그렇다 해도 제국은 온 세상이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것, . . 인류는 하나의 대가족으로 인식됨.”(《사피》 p. 280-81) 이런 ‘자애로운 제국관’이 페르시아 제국, 로마의 황제, 무슬림 칼리프, 소련의 지도자, 미국 대통령에게로 이어졌다.

“제국은 수많은 작은 문화를 융합해 몇 개의 큰 문화를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제국 내에서는 아이디어와 사람, 재화와 기술이 정치적으로 분열된 지역보다 더욱 쉽게 퍼져나갔다.”(《사피》 283)

조선의 小中華 의식

“중국의 지배층은 이웃 나라와 그 신민들을 제국이 문화의 혜택을 가져다주어야 하는 비참한 야만인으로 취급했다. 황제에게 천명이 부여된 것은 세상을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가르치라는 의도에서였다. 로마인들도 유사한 주장을 폈다. . . . 자유주의와 자유무역이라는 쌍둥이 복음을 퍼뜨리겠다는 영국의 사명에는 해가 지는 일이 없었다.(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의 신념) 소련은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유토피아적 독재로 향하는 불굴의 역사적 행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무에 스스로 매여 있었다.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부에게는 제3세계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혜택을 가져다줄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사피》 284)

조선조의 小中華의식을 보면, 중국 제국주의는 잘 통했다. 류성룡도 예외아님.

영국 작가 Joseph Rudyard Kipling 1865 -1936)

〈백인의 짐〉, ‘The White Man’s Burden’(1899년 2월에 발표)이라는 시를 연상, 키플링은 미개한 인종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백인의 의무라고 역설한다. 1899년 2월, 에스파냐가 물러난 필리핀을 미국이 침략한다.

‘Good Guys and Bad Guys in History’ 장에서

“역사를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깔끔하게 나누고 모든 제국은 나쁜 편에 속한다고 분류하고픈 유혹이 들기는 한다.”(《사피》 291) “인류의 모든 문화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제국과 제국주의 문명의 유산; 환자를 죽이지 않고 제국의 유산만을 도려낼 수는 없다.”(《사피》 291)

제가 곧 말씀드릴 고타마 붓다의 초기불교, 팔리(Pali)어 경전불교. 영국제국과 일본제국의 덕분, 영국문관, 팔리어 텍스트 발견, 런던에 갖고 감. Pali Text Society, 20세기 초, 일본인학자, 가서 배우고, 南傳大藏經; 20세기말, 21세기 한국에도 전파

영국과 인도의 사례에 적용함

“(영국)식민 정부는 수억 명 이상의 인도인을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착취한 책임이 있다. 인도인은 민족자결이나 인권 같은 서구의 개념들을 받아들였다. .. 인도라는 현대 국가는 대영제국의 자식이다. . . 영국인은 어느 정도 하나의 정치 단위로 기능하는 국가를 창조해냈다. 영국인들이 인도 사법제도의 초석을 놓았으며, 경제적 통합에 극히 중요한 철도망을 건설했다. 독립 인도는 영국에서 구현된 형태의 서구식 민주주의를 정부 형태로 받아들였다. . .

. . . 잔인한 제국의 유산을 모조리 거부하더라도, 보나마나 그때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되고 못지않게 야만적인(no less brutal) 제국의 유산에 불과할 것이다. . . 과거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선인과 악당으로 나누는 것은 아무 소용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사피》 292-93)

제국주의 장에서 하라리가 내린 결론은, 이제 국민국가에서 새로운 지구제국으로 왔다.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수용해서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하라리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일본제국의 유산’을 기술할 수 있을까? 일본제국이 아니라 조선은 얼마나 신사적이었을까? 철학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의 공간’이 필요하다. 일제의 유산 중 하나,

니시 아마네 (西 周, 1829~1897)는 希哲學, 哲學

종교

“종교는 돈과 제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인류를 통일시키는 매개체다. 모든 사회 질서와 위계는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두 취약하게 마련이다. 종교의 핵심적 역할은 취약한 구조에 초월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있었다.”(《사피》 298)

일신교는 세계를 통일시키긴 하지만 다신교보다는 훨씬 잔인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지 3백년 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개종할 때까지, . . . 다신교를 믿는 로마인들이 살해한 기독교인은 몇 천 명을 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후 1,500년간 기독교인은 사랑과 관용의 종교에 대한 조금 다른 해석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기독교인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사피》 306-7)

“기원후 1세기 초반, 세상에는 일신론자가 전혀 없다시피 했다. . . 오늘날 동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저런 유일신을 충실히 믿고 있으며, 세계 정치질서 또한 유일신적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사피》 310-11)

돈 money: 제국과 종교보다 더 유연함.

오사마 빈 라덴-미국의 문화, 정치, 종교는 증오했지만 달러는 좋아했다.

같은 신을 믿지 않아도 같은 왕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같은 돈 사용;

보편적 질서 중 최초로 등장한 것이 돈,

신(종교)과 왕(제국)이 실패한 곳에서 돈은 성공함.

수렵채취인들에게는 돈이 필요 없었다. 물물교환;

하지만 복잡한 상업체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화폐가 필요함. “돈은 거의 모든 것을 다른 거의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있게 해 주는 보편적인 교환수단”

부의 축적 수단; 저장만 아니라 이동도 가능해야 한다.

현재 돈 중에 보편성 실재성이 가장 큰 것이 달러. 달러화의 가치는

“우리의 공통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돈은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물(psychological construct)이다.” (《사피》 258). . .

화폐란 상호신뢰 시스템의 일종이지만, . . . 인간이 고안한 것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상호신뢰 시스템(mutual trust)이다. 이런 신뢰를 창조한 것은 정치, 사회, 경제적 관계의 매우 복잡한 장기적인 네트워크다. . . 우리가 달러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미국 재무성을 믿기 때문이다. 신뢰(trust)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왜 금융 시스템이 우리의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 시스템과 그토록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준다.” (《사피》 258-259) (물론 한화보다는 달러가 세계에서 신뢰가 더 있다. 미국 국가, 세계적 지위 때문.)

“돈은 인류가 지닌 관용성(human tolerance)의 정점이다. . . 종교나 사회적 성별, 인종, 연령, 성적 지향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유일한 신뢰 시스템이기도 하다. 돈 덕분에 서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사피》 266)

돈은 두 가지 원리로 작동: 보편적 전환성, 보편적 신뢰

“투자자와 은행가 대다수가 자본주의를 신봉하지 않는다면, 현대 경제 시스템은 단 하루도 유지하지 못할 것”(《사피》 169)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나 민주주의, 자본주의 같은 상상의 질서를 믿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그 질서가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는 위대한 신이나 자연법에 의해 창조된 객관적 질서라고 늘 주장해야 한다. . . . 자유시장이 최선의 경제체제인 것은 애덤 스미스가 그렇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불변의 자연법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사피》 169-170),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아마?

화폐에는 어두운 점도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돈이 그것을 무시하기 쉽다.

인간 사회와 가족은 명예, 충성심, 도덕, 사랑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삼았다. 그런데 돈은 이를 무시할 수 있다.

돈의 더 어두운 절: 돈은 공동체, 신앙, 국가라는 댐을 무너뜨려, 세상을 “하나의 크고 비정한 시장”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사피》 268)

5. 인본주의(humanism)와 자유주의 이야기

인본주의도 자유주의도 스토리/허구의 하나
신에 대한 스토리 중심이 중세의 특성이었다.

중세를 지나서, 이제 신이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를 숭배하는 인본주의

(humanism)가 등장. 인본주의로 세 유형을 제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진화론적 인본주의-나치즘을 제시함

1)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liberal humanism

“이 사상은 ‘인간성(humanity)’은 개별 인간의 속성이며 개인의 자유는 더할 나위 없이 신성하다(sacrosanct)고 믿는다. 자유주의자에 따르면, 인간성의 신성한 성질은 모든 개별 사피엔스의 내면에 갖춰져 있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적 주된 계명들은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지닌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계명들을 통칭하여 ‘인권’이라고 부른다.” (《사피》 327-8)

“우리의 자유주의적 정치·사법 제도는 모든 개인이 신성한 내적 본성(a sacred inner nature)을 지니고 있다는 윤리적, 정치적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내면에 자유롭고 영원한 영혼이 거한다는 기독교 신앙의 환생이다.

하지만 지난 2백 년에 걸쳐 생명과학은 이런 믿음을 철저히 약화시켰다.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내적 작동방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거기서 아무런 영혼을 발견하지 못했다. 인간의 행동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호르몬, 유전자, 시냅스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을 펴는 과학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칩팬지, 늑대, 개미의 행동을 결정하는 바로 그 힘 말이다.”(《사피》 334-35)

2)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social humanism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성’이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이 신성하게(sacred) 보는 것은 개별 인간의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 호모 사피엔스 종이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개개인의 최대한의 자유를 추구하는데 반해,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추구한다. 사회주의자에 따르면 불평등은 인간성의 존엄성에 대한 최악의 모독이다. . .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일신론의 토대 위에 건설되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상은 모든 영혼(all souls)이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는 일신론적 확신의 개정판이다.” (《사피》 328-9)

3) 진화론적 인본주의(evolutionary humanism)

전통적 일신론의 속박에서 벗어난 인본주의;

국가사회주의, 나치(the Nazis); 진화론의 영향이 크다.

“나치는 다른 인본주의자들과는 달리 인류를 보편적이고 영원한 무엇이 아니라 진화하거나 퇴화할 수 있는, 변하기 쉬운 종으로 보았다. 인간은 초인으로 진화할 수도, 인간 이하(subhuman)로 퇴화할 수도 있었다. 나치의 주된 야망은 인류의 퇴화를 막고 진화를 부추기는 것이었다. . . . 나치에 따르면, 호모 사피엔스는 이미 각기 고유한 자질을 지닌 여러 개의 다른 종족으로 나뉘었다. 그중 하나인 아리아인은 최상의 자질을 자랑했다. . . 다른 종족, 예컨대 유대인이나 흑인은 열등한 자

질을 지닌 오늘날의 네안데르탈인이었다. 이들이 번식하게 놓아둔다면, 호모 사피엔스의 멸종을 가져오리라고 했다. . . .

[그런데] 각기 다른 인종이 존재한다는 것, 백인이 우월하다는 것, 이 우월한 인종을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서구 엘리트 대부분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다.”(《사피》 329-330) 칸트, 헤겔, 교향곡 5번을 작곡한 베토벤; 데리다는 예외?

“나치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는 약자를 원조함으로써 적응하지 못한 개인의 생존을 허용할 뿐 아니라 번식할 기회를 주어 자연선택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 . 멸종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사피》 332)

자유주의는 감정과 욕망을 강조함; 불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사피》의 끝 부분에 자유주의와 감정 간의 관련에 대해 언급함.

“자유주의는 개인의 주관적 느낌(feelings)을 신성시한다.(santifies) 개인의 느낌이 권위의 최고 원천이라고 본다. 선과 악, 미와 추, 당위와 존재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자유주의 정치학은 투표자가 가장 잘 안다는 생각, 빅부라더는 필요 없다.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 속에 있는 것이라고 인문학은 선언하다.”(《사피》 554, 번역 일부 수정) 두상의 변기

《호데》 7장 인본주의 혁명(Humanist Revolution)에서, 감정/느낌(feelings)의 역할을 대단히 강조함.

“수백 년 동안 인본주의는 우리가 의미의 최종 원천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최고의 권위라고 설파해왔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느낌(feelings)과 욕망(desires)에 의지하면 된다. 우리는 유아기부터 인본주의 슬로건의 포화를 맞는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것을 하라.’”(《호데》, 309-310, 영어본, p. 261)

“윤리학에서 인본주의의 모토는 ‘좋게 느껴지면 해라’이다. 정치학에서 인본주의는 ‘유권자가 가장 잘 안다’고 가르친다. 미학에서 인본주의는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호데》 319, 영어, p. 230)

“의미와 권위의 원천이 하늘에서 인간의 감정으로 옮겨오면서 우주 전체의 성질이 변했다. 외부 우주는 텅 빈 공간이 되었다. 반면 내부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풍부해졌다. . . .” (《호데》 323)

“내가 신을 믿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고 느끼기(feel) 때문이고, 신이 있다고 내 심정(heart)이 말하기 때문이다.”(《호데》 326)

하라리는 윤리적 지식을 얻는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함.

1. 중세유럽에서의 지식=성경x논리

2. 과학혁명 지식=경험적 데이터x수학

3. 인본주의 지식=경험x감수성(sensibility)

경험이란 무엇인가?

“경험은 원자, 전자기파, 단백질,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경험은 세 가지 주요 성분인 감각, 감정, 생각으로 이루어진 주관적 현상이다. . . .

그러면 감수성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뜻한다. 첫째는 감각, 감정, 생각에 주목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 감각, 감정, 생각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 . 경험과 감수성은 끝없는 고리로 이어져 서로를 강화한다.”(《호데》 329, 영어 p. 239)

“역사상 인간의 감정, 욕망, 경험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문화는 없었다. 관광에서 예술까지 수많은 현대산업의 창립신화가 되었다.”(《호데》 331)

“국민투표와 선거는 언제나 인간의 느낌에 관한 것이지 이성적 판단(human rationality)에 관한 것이 아니다. . . . 선거와 국민투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what we think) 묻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what we feel) 묻는 것이다.”(《21》 83)

광화문에 가든, 서초에 가든 모두 느낌에 따라 행위한 것.

“느낌/감정(feelings)은 모든 포유류와 조류가 생존과 재생산의 확률을 재빨리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생화학적 기제다. 느낌/감정(feelings)은 직관이나 영감, 자유가 아니라 계산에 기반을 둔 것이다. (부분 수정)

원숭이나 쥐, 인간은 뱀을 보면 두려움이 일어난다. . . .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feelings of sexual attraction), 분노, 죄책감, 용서와 같은 도덕적 감정은 신경 매커니즘에서 나온다. 이 모든 생화학적 알고리즘은 수백만 년에 이르는 진화를 거치면서 연마된 것이다. . . . 감정은 합리성의 반대가 아니다. 감정은 진화적 합리성(evolutionary rationality)를 체화한 것이다.(embody)

감정이 사실은 계산(calculation)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계산의 과정이 각각의 문턱 아래에서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존과 재생산의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뇌 속의 수백만 개 뉴런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뱀에 대한 공포나 성관계 상대의 선택 혹은 유럽연합에 관한 의견이 어떤 신비한 ‘자유 의지’의 결과라고 착각한다. 비록 자유주의가 우리의 감정이 자유 의지를 반영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감정에 의존해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잘 통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에 마법 같거나 자유로운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무엇을 공부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느 당에 투표할지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감정이 우주에서 최선이었기 때문이다. 외부의 어떤 시스템도 나보다 내 감정을 더 잘 이해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다.”(《21》 85-6, 수정)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와 진화론적 인본주의

2.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사회주의와 공산주의)

3. 진화론적 인본주의, 나치즘

이 두 분파는 인간의 경험이 의미와 권위의 원천이라는 데는 동의
(《호데》, p. 343.)

이런 자유주의 감정론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은 아래와 같이 비판함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관심의 초점을 자신의 느낌(감정, feelings)에 둔다고 비난한다. . . 자유주의가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독자성(uniqueness)과 내 나라의 독자성을 강조한다면, 사회주의는 타인들이 어떻게 느끼고 내 행동이 그들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한다. . . 이에 대한 반박으로, 어떤 자유주의자는 자기 내면을 탐구함으로써 동정심(compassion)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레닌이나 마오쩌둥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 .당신의 정치적 견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취미와 야망은 내 진정한 자아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 . 그런 것들은 계급에 의존한다.”(《호데》 348-9)

세 분파 간의 전쟁에서 일단 자유주의가 이겼다. 왜?

“자유주의자들은 정보화시대에 훨씬 잘 적응했다.”(《호데》 378)

데이터 처리방식에서의 유연성 즉 분산식 데이터 처리방식

“자본주의가 이기고 공산주의가 패한 것은 자본주의가 더 윤리적이어서도, 개인의 자유가 신성해서도, 신이 이교도인 공산주의자들에게 분노해서도 아니었다. 자본주의가 냉전에서 승리한 것은, 적어도 기술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 처리보다 분산식 데이터 처리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호데》 509-511) F. Hayek: 인간이성의 한계-정부의 시장 개입의 실패를 연상

“우리는 곧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이 승리한 것은 그 제도들이 ‘좋아서’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두 제도가 전 지구적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개선했기 때문이다.”(《호데》 520)

“자유주의 이야기가 훨씬 유연하고 역동적인 것(supple and dynamic)으로 입증됐다.”(《21》 30) 공감의 반경(the circle of empathy)을 넓혀 자유와 나란히 평등까지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였다.”(《21》 30-31)

“자유주의가 결국 사회주의에 승리를 거둔 것은 사회주의 프로그램의 가장 좋은 부분들을 채용했기 때문이었다. 21세기 우리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현장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호데》 445)

자유주의 아래에서 큰 평화나 번영을 누렸다.

하지만 자유주의 안에 파멸의 불씨가 있다고 함.

그 불씨를 The Data Religion, Datatism: 데이터 중심적 생각에서 본다.

닭, 인간, 인간 이상의 존재(the Data religion)

“인간이 닭보다 우월한 점이 무엇인가? 정보 흐름의 패턴이 닭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밖에 더 있는가? . . . (인간이 더 깊은 감정과 더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감정과 지능은 알고리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흡수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창조한다면, 그 시스템은 인간이 닭보다 우월하듯 인간보다 우월하지 않을까?” (《호데》 522-23)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한 이유, the data religion, dataism

“지난 7만 년 동안 인간의 경험은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이었고, 따라서 인간의 경험은 신성시할 만 했다. . . 만일 우리가 같은 기능을 더 잘 해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면, 인간 경험은 그 가치를 잃을 것이다.” (《호데》 532)

평등의 관점에서도 데이터 종교는 문제다

AI 시대에 불평등은 더 커질 것이다.

“농업혁명 이후 재산은 점점 불어났고 불평등도 함께 커졌다.”(《21》 124)

“21세기에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토지와 기계는 밀려났다. 정치는 데이터 흐름을 지배하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다. 앞으로 데이터가 너무나 적은 손에 집중되면 인류는 다른 종으로 나뉠 것이다.” (《21》 129)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규모의 데이터와 더불어 컴퓨팅 능력이 충분히 커지면 데이터 거인들은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해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지식을 사용해 우리 대신 선택을 하고 우리를 조종할 뿐만 아니라, 유기적 생명을 재설계하고 비유기적 생명체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 .”(《21》 130-31)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당신의 신체와 뇌로부터 생체측정 센서를 통해 스마트 기계로 흘러들어 감에 따라, 기업과 정부 기관은 당신을 알고, 조종하고, 당신 대신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질 것이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모든 신체의 뇌의 깊은 메커니즘을 해독하고 그것으로 생명을 설계하는 힘을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는가? 나의 DNA와, 나의 뇌와, 나의 생명에 관한 정보는 나에게 속하는가, 정부에 속하는가, 기업에 속하는가, 아니면 인류 공동의 소유인가?

정부는 데이터 국유화를 위임받으면 아마 대기업들의 힘을 제어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소름 끼치는 디지털 독재digital dictatorship를 초래할 수도 있다.
.. 정치인들이 우리의 감정 버튼을 눌러 불안과 증오와 기쁨을 임의로 일으킬 수
있게 되면 정치는 감정 서커스에 불과해질 것이다. (탁현민?). .. 데이터 소유를 어
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질문일 수 있
다. 이 질문에 조만간 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사회정치적 시스템은 붕괴될 수도 있
다. . 자유주의 이야기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는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21》 132-4)

“우리는 지금 엄청난 두 가지 혁명이 합쳐지는 지점에 와 있다. 한편으로는 생물
학자들이 인간 신체, 특히 인간의 뇌와 감정의 신비를 해독하고 있다. 동시에 컴퓨
터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유래 없는 데이터 처리 능력을 선사하고 있다. 생명기술
혁명과 정보기술 혁명이 합쳐지면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은
내 감정을 나보다 훨씬 더 잘 모니터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권위는 아
마도 인간에게서 컴퓨터로 이동할 것이다. 지금까지 접근 불가였던 나의 내부 영역
을 제도화, 기업, 정부 기관이 이해하고 조작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자유
의지에 대한 나의 환상은 산산조각 날 가능성이 높다.”(《21》 87-88)

“생명기술과 기계 학습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심층 감정과 욕망까지 조작하기
가 점점 쉬워질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our heart)을 따르는 일도 점점 위험해
질 것이다. 코카콜라나 아마존, 바이두 혹은 정부가 우리의 가슴에 연결된 조종끈을
당기고 뇌의 버튼을 누르는 법을 아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나 자신의 목소리이고
어떤 것이 시장 전문가가 주입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 있을까?.. 코카콜라와 아마
존, 바이두, 정부 모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유기적 운영 체계를 해킹하는 경쟁에 뛰
어든 것이다.. 우리 개인의 존재와 삶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다면 알고리
즘보다, 아마존보다, 정부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 그들보다 먼저 나 자신을 알아
야 한다.”(《21》 401-3)

“그들보다 나 자신을 빨리 알아야 한다. 이는 윤리적 규범이다; 하라리의 설명이
상당히 디스토피아적이지만, 규범을 요청함. 감정이 아닌 이성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인지?”

데이터 거인에는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각국 정부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영화
터미네이터 5에 나오는 스카이넷이라는 거대한 초고성능의 정보처리시스템 자체가
거인일 수 있다.

디지털 독재 (Digital Dictatorships): 북한의 김정은 사례

디스토피아 소설 ‘1984년’을 지은 조지 오웰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사회

“가령, 북한 정권은 . . . 미래에는 북한 국민에게 혈압과 뇌 활동은 물론 모든 언
행까지 감시하는 생체측정 팔찌 착용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 . . 김정은의 사진을
보여준 다음 생체측정 센서에 분노의 징후(혈압 상승과 편도체 활동의 증가)가 포

착되면, 그 사람은 내일 아침 정치수용소에 간다는 식.” (《21》 111-12)

《호모 데우스》 첫부분에서

인류의 세 가지 과제

과제 1: 기아, 역병 전쟁을 통제하고 번영, 건강, 평화를 회복함.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최대의 고통: 기아, 疫病(역병, 전염병, 흑사병, 천연두)

그 고통은 우리의 능력으로 줄었다.

“21세기 인류의 최상위 의제에 오를까? . . . 우리 자신의 힘에 내재된 위험들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아, 역병, 전쟁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경이로운 경제성장 덕분이었다. 성장은 우리에게 풍부한 식량, 의료혜택, 에너지, 원재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장은 우리가 이제 겨우 탐사하기 시작한 지구의 생태적 균형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다. 인류는 이 위험을 뒤늦게 인정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염,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직도 개선에 필요한 진지한 경제적 정치적 희생을 하지 않는다. 경제성장과 생태계 안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정치인, CEO, 유권자들의 심중팔구가 성장을 선호한다. 21세기에도 이런 식이면 우리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호데》 38-39)

“하지만 자유주의는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다. 생태학적 붕괴와 기술적 파괴라는 문제 말이다. 자유주의는 전통적으로 경제 성장에 의지해 어려운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마술처럼 해결했다.. . 하지만 경제 성장은 지구의 생태계를 구하지는 못한 것이다. 경제 성장은 기술적 파괴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경제 성장 자체가 점점 위력을 더해가는 파괴적 기술의 발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1》 39-40)

시장의 문제

“우리의 미래를 시장의 힘에 맡기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그 힘들이 인류나 세계에 유익한 일을 하기 보다는 시장에 유익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손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시장이 제멋대로 하도록 맡겨둔다면, 지구의 온난화의 위협이나 인공지능의 위험한 잠재력에 직면해서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호데》 516)

인류의 과제 2: 행복의 추구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화학적 기제 조작, 각성제 복용 등(《호데》 63-4)

“생물학적 수준에서 보면, 기대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생화학적 조건이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우리는 불쾌한 감각에서 벗어나 유쾌한 감각을 느낄 때 행복하다. 제러미 벤담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이란 고통 없이 쾌락을 느끼는 상태일뿐, 쾌락과 고통 외에 선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 생명과학에 따르면, 행복과 고통은 단지 그 순간에 어떤 신체감각이 우세한가의 문제이다. . . 몸에서 일어나는 유쾌한 감각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호테》 58-9)

나쁜 소식은, 유쾌한 감각이 순식간에 사드라들어 불쾌한 감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 . 모든 진화탓이다. . . 우리의 생화학적 기제는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유쾌한 감각(pleasant sensations)으로 보상한다. 하지만 이러한 감각은 알파한 상술일 뿐이다. 우리는 배가 고플 불쾌한 느낌을 피하고 기분 좋아지는 맛과 황홀한 오르가슴을 즐기기 위해 음식과 연인을 필사적으로 찾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맛과 황홀한 오르가슴은 얼마 못가고, 그런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더 많은 음식과 연인을 찾아나서야 한다. (《호테》 61) 권력 있는 남성들이 주로.

“그 경이로운 감각을 느끼고 싶다면 다시 승진하는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도 마찬가지다. 혹시 승진하지 못한다면, 계속 말단 직원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씹쓸하고 화가 날 것이다.(《호테》 61)

“2,300년 전 에피쿠로스는 제자들에게 무절제한 쾌락 추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 비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보다 약 200년 전 붓다는 훨씬 더 급진적인 주장을 했다. 그는 쾌감(pleasant sensations, 樂受)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쳤다. 그런 감각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의미한 동요일 뿐이라는 것이다. 쾌감을 느껴도 우리는 만족하지는커녕 더 많이 갈구한다.(crave more) 그러나 행복하거나 흥분된 감각을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호테》 67) 몇 십 년을 추구해도 만족은 없다.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쾌락을 빠르게 뒤쫓을 것이 아니라 놓아줄 필요가 있다. . . 생화학적 해법은 한순간도 쾌감이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쾌감을 제공하는 제품과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쾌감에 대한 갈구 자체를 줄여 쾌감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붓다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마음 수련을 통해 감각들(sensations)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덧없고 무의미한 동요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런 감각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생기자마자 사라지는 것을 뭐하러 뒤쫓겠는가?

현재 인류는 생화학적 해법에 훨씬 관심이 많다. 히말라야 동굴의 수도사들이나 상아탑의 철학자들이 뭐라도 하든 자본주의라는 거대조직에게 행복은 곧 쾌락이다. . . . 해가 갈수록 불쾌감에 대한 우리의 인내심은 줄고 쾌락에 대한 갈구는 커진다. 과학 연구와 경제활동도 그 목표에 맞춰져, 매년 더 나은 진통제,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 더 편안한 매트리스 그리고 . . . 더 중독성 있는 스마트폰 게임을 생산한다. 물론 이 정도로는 어렵었다. . . 생화학적 기제를 바꾸고 몸과 마음을 재설계할 필

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21세기 두 번째 과제인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쾌락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호모 사피엔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수이다.”(《호데》 67-9)

하라리는 느낌과 감정, 행복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세계사에 적용함.

과제 3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신이 됨(호모, pp. 68-9).

여기에서 신은 전능한 신이 아니라 특정한 능력을 지닌 존재.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인조인간 만들기), 그리고 비유기체 합성이다. . . 생명공학자들은 오래된 사피엔스의 몸을 가져다 유전암호를 고치고, 뇌 회로를 바꾸고, 생화학 물질의 균형을 바꾸는 것은 물론 새로운 팔다리까지 자라게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신을 창조할 것이고, 그렇게 탄생한 초인류는 . . . 지금의 사피엔스와는 다를 것이다.

사이보그 공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기체를 비유기적 장치들과 융합할 것이다. 그런 비유기적 장치에는 생체공학적 손, 인공 눈, . . . 나노 로봇이 있다. 이러한 사이보그들은 어떤 유기체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 더 과감한 접근방식은 유기적 부분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비유기적 존재를 설계하는 것이다. . . 생명이 유기적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면, 지구라는 행성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 비유기적 인공지능은 외계 행성에서 유기체보다 훨씬 수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 . 이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신과 비슷해진 후손들은 어떤 모습을 할지 모른다. . . 우리가 신기술로 인간의 마음을 재설계할 수 있을 때 호모 사피엔스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호데》 69-72)

III. 불교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

붓다는 인류의 진화론적 특성을 잘 알고 그것을 적절히 통제하라고 가르침 만족을 모르는 성질이 낳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

작년 말 승진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낀 쾌감은 벌써 사라지고 없다.

하라리의 불교 이야기 (《사피》 318-): 고타마 싯다르타의 일생을 기술 인간의 무한 욕망 추구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지적함.

6년 고행 끝에 “번뇌를 사람의 마음이 행동하는 패턴에서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개함. (p. 319)

“당신이 슬픔을 경험하되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집착을 품지 않는다면, 당신

을 계속 슬픔을 느끼겠지만 그로부터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슬픔 속에 풍요로움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이 기쁨joy을 느끼되 그것이 계속 유지되며 더 커지기를 집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계속 기쁨을 느낄 수 있다.”(《사피》 320-21)

“성경과 쿠란, 베다를 쓴 것도 우리 인간의 손가락이고, 이들 이야기에 힘을 부여한 것도 우리의 마음minds이다. 모두가 아름다운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아름다움도 철저히 보는 사람 눈(eyes of the beholder)에만 그렇게 보인다. 예루살렘, 메카, 바라나시, 부다가야는 성스러운sacred 장소이지만, 그 역시 인간이 그 곳에 갔을 때 경험하는 느낌(feelings) 때문이다. 우주도 그 자체로는 의미 없는 원자들의 뒤죽박죽일 뿐이다. 아무 것도 아름답거나 성스럽거나 섹시하지 않다. 하지만 인간의 느낌(human feelings)이 그렇게 만든다. 빨간 사과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도, 똥 덩이를 역겹게(disgusting) 만드는 것도 오로지 인간의 느낌이다. 인간의 느낌을 제거하면 남는 것은 분자 다발뿐이다.”(《21》 450-51)

一切唯心造

자아, 창조성, 내가 만든 생의 의미, 자유의지는 허구다

바로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자유주의의 이야기에 따르면 창조자는 나 자신이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느낌과 사고와 욕망과 발명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자유주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계율의 빛으로 살아간다. 창조, 그리고 자유를 위한 투쟁이다. . . 로자 파커스, 피카소 . . .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은 자유주의 이야기가 상상하는 대로가 아니다. 오늘날 최신의 과학 지식에 따르면, 우리의 선택과 창조 이면에는 아무런 마술이 없다. 선택과 창조 이면에는 여전히 종교재판이나 KGB만큼이나 가차없는 생화학 알고리즘의 지시를 따를 뿐이다.(《21》 451-2)

자유주의 이야기, 자아와 자유는 동화 같은 이야기

“만약 ‘자유 의지’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면 물론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다. 하지만 ‘자유 의지’가 욕망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를 뜻한다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자유 의지가 없다.”(《21》 452-3)

[나의 성적 지향(동성애자)은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나의 뉴런이 내게 강요한 것이다. . . 성적 욕망에 대해서 참인 말은 모든 욕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실로 모든 느낌과 생각에도 해당된다. . . 궁극에는 우리의 욕망, 심지어 이런 욕망에 대한 반응까지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나 욕망, 욕망에 덜 집착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 의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 의지의 폭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21》 453-4)

출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성애, 이성애자 모두 부자유함.

“‘자아’야말로 우리 마음의 복잡한 메카니즘이 끊임없이 지어내고 업데이트하고 재구성하는 허구적 이야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 안에 스토리텔러가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바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한다. . . 그리고 정부가 국기와 상징물icons과 행진으로 국가의 신화를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의 선전 기계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기억들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트라우마들로 나만의 신화를 구축한다. 하지만 이 역시 진실과는 닮은 것이 별로 없을 때가 많다. . . (《21》 454-5)

“우리의 실제 경험은 신체적인 데corporeal 반해, 우리의 환상 속에서 빛어지는 자아는 아주 시각적이기visual 쉽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 .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면 페이스북 계정이나 자기 내면에서 하는 이야기와 자신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몸과 마음의 실제 흐름을 관찰해야 한다. 그러면 이성의 많은 개입 없이도, 그리고 자신의 아무런 지시 없이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스스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 . 당신은 이야기와 아니라는 것이다.” (《21》 456-57)

“자유주의는 모든 우주적인 드라마를 부인함으로써 급진적인 일보를 내디뎠지만 인간 존재 내부의 드라마 속으로 뒷걸음질쳤다. 우주는 짜인 각본이 없으므로 그것을 창조하는 일은 인간에게 달렸다.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삶의 의미라는 이야기다. 자유주의 시대에 이르기 수천 년 전에 이미 고대불교는 모든 우주적 드라마뿐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내적 드라마까지 부인했다. 우주는 의미가 없으며 인간의 느낌(human feelings)에도 의미가 없다. 그것(feelings)은 단지 덧없는 떨림(ephemeral vibrations)이며 특별한 목적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그것이 진실(the truth)이다. 그것을 넘어서라.” (《21》 457)

하라리는 초기불교 경전의 하나인 大念處經(마하사티파타나 숫타)을 인용하고 있다. p. 457-8, 알아차린다.

“이 몸에는 . . . 타액, 콧물, 오줌이 있다. 그렇게 그는 몸을 관찰하며 숙고한다.” (《21》 458) 그러니까 이 몸에 아름다운 것도 매력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보이는 것에는 단지 보이는 것만 있어야 할 것이다.”(ditthe ditthemattam bhavissati, S IV 73).

불교에서 말하는 세/네 가지 진리(三法印, 四法印)

일체개고(一切皆苦 · Dukkha) ·

제행무상(諸行無常 · Anicca) ·

제법무아(諸法無我 · Anatta)

모든 것이 부단히 변한다-諸行無常, 모든 본능적 행위는 무상하다

지속적인 본질은 없다(no enduring essence)-諸法無我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도 없다. - 一切皆苦;

涅槃寂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본질을 지닌 것,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것을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괴로움(suffering)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존중하지(appreciate)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사람들은 어딘가에 어떤 영원한 본질이 있으며, 그것을 찾아서 연결만 하면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 영원한 본질을 때로는 신이라 부르고, 때로는 국가, 때로는 영혼, 때로는 진정한 자아, 때로는 진실한 사랑이라 부른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예정된 실패에 따른 실망과 참담함(miserable)도 커진다. 염원하는 목표와 자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개인, 집단, 제도를 향한 증오심(hatred)도 커진다.”(《21》 458-9)

“붓다에 따르면, 생애는 의미가 없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의 물음에 붓다는 이렇게 조언한다. ‘아무 것도 하지 말라. 절대로 아무것도.’(《21》 459) 無爲之爲? 불교의 역사는 하지만 다툼과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p. 460

18세기 버마와 시암 사이의 전쟁의 역사;

버마 왕 신뷰신(Hsinbyushin)의 군사가 시암의 수도를 포위하고, 왕족을 죽인 이야기; 1930년대 일본의 불교 사상가들이 천황을 돕고, 난징, 마닐라, 서울에서 일본군의 행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논함. 미얀마의 인권 기록은 최악

하라리의 명상 관련 언급

명상을 해도 그것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영웅과 악당, 적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왜곡되는 것을 막지 않는 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 “80억 인류가 정기적인 명상을 시작한다고 해서 세계 평화와 전지구적 조화가 도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신에 관한 진실을 관찰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다! 대부분의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쪽으로 노력하게 한다 해도 우리 중 다수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진실(truth)을 재빨리 영웅과 악당, 적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왜곡하고 만다. 그리고는 전쟁을 일으킬 정말 그럴싸한 명분을 찾아낸다.”(《21》 463)

민족주의라는 이야기: 한국인에게는 크고도 오랜 문제

하라리가 본 민족주의는 문화적 meme; 문화적 정보단위

민족문화, 민족주의에 대해 아주 비판적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문화를 일종의 정신적 감염이나 기생충(mental infection or parasite)처럼 보고 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새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

이다. 바이러스 같은 기생체(organic parasitces)는 宿主(host)의 몸속에서 산다. 이들은 스스로를 복제하며 숙주에서 숙주로 퍼져나가며, 숙주를 먹고 살면서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게 할 때도 있다. 숙주가 기생충을 퍼뜨릴 만큼 오래 살기만 하면, 기생체는 숙주의 상태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화적 아이디어는 인간의 마음 속에 산다. 증식해서 숙주에서 숙주로 퍼져나가며, 가끔 숙주를 약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한다.”(《사피》, pp. 343-344)

이러한 문화적 밈, 문화적 아이디어로 기독교/무슬림 교도의 천상의 천국, 공산주의자의 지상낙원에 대한 믿음과 같은 것; 무슬림이 테러해서 서양의 악마를 죽이다가 죽으면 내세에는 영생한다. ; “이런 문화적 아이디어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의 전파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걸고서 헌신하게 만든다. 해당 인간은 죽지만, 아이디어는 퍼져나간다.”(《사피》 344)

“문화는 . . . 우연히 출현해서 자신이 감염시킨 모든 사람을 이용하는 정신의 기생충(mental parasites)에 더 가깝다.” 이런 연구를 밈meme 연구라고 부름. “유기체의 변화가 ‘유전자gene’라 불리는 유기체 정보 단위의 복제에 기반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진화는 ‘밈’이라 불리는 문화적 정보 단위의 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공적 문화란 그 숙주가 되는 인간의 희생이나 혜택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밈을 증식시키는 데 뛰어난 문화다.”(《사피》 344)

“민족주의 바이러스는 스스로가 인간에게 혜택이 된다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주로 자기자신에게만 이익이 되었다.”(《사피》 345) 민족주의는 민족을 구성하는 개별 유기체의 행복에 무관심하다.

민족주의도 문화적 유전자(밈)의 결과.

이 밈은 문화, 교육(교과서), 언론에 의해 재생 반복됨.

민족/애국심이 역사에 기여한 점

단일 부족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에 민족;

이집트의 사례: 여러 부족들은 점차 하나의 민족이 되었다. 그 힘으로 댐과 수로를 건설하고, 강의 흐름을 조정하고, 흉년에 대비한 곡물 창조를 짓고, 전국에 걸쳐 운송과 연락 체계를 확립함.

민족 단위가 크면 클수록 대중의 충성심이 요구됨. 결과적으로 공감의 반경을 확장하게 됨. 이런 애국심은 “인간의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자애로운 것(benevolent)에 속한다. . . . 민족주의가 없으면 우리 모두가 자유주의 낙원에서 살 거라고 상상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오히려 부족의 혼돈 속에서 살 가능성이 높다. 스웨덴과 독일, 스위스 같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자유주의 국가들은 모두 민족주의 감정도 강하다. . . .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톱고 등 실패한 국가들은 민족적 유대감도 부족함.) 문제는 선의의 애국심이 국수주의적 초민족주의chauvinistic ultranationalism로 변질될 때 일어난다. 《21》 175 [일본 제국주의, 나치 등]

남한의 민족주의에 대해

“다른 민족운동도 편협하기(narrowed-minded)는 마찬가지다. . . 한국의 민족주의자는 세상 전체를 볼 때 아시아 대륙 동쪽 해안의 작은 반도야말로 우주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는다.”(《21》 414)

“민족주의는 영웅담들로 우리의 녀을 잃게 하고, 과거의 재난을 되새겨 감동으로 눈물짓게 하는가 하면, 민족이 겪은 불의를 반추해 우리의 분노(our fury)에 불을 붙인다. 우리는 이런 민족의 서사에 너무나 심취한 나머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 민족에 미치는 영향으로 평가하기 시작한다. 그 전에 먼저 우리 민족이 왜 중요한지 물어볼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 . 사람들은 10억 년 된 신을 위해서나 1,000년 된 민족을 위해서나 똑같이 살인적인 광신주의(murderous fanaticism)를 내 보일 수 있다.” (《21》 416-17)

가장 나쁜 것은 민족주의가 파시즘으로 흐르는 것.

“민족주의는 나의 민족은 고유하며 나는 내 민족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는 데 반해, 파시즘은 내 민족이 가장 우월하며 나는 내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심해지면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의 참사가 생긴다 . .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부지불식간에 파시스트적.”(《21》 441-42)

파시즘 어원은 라틴어 fascis(파스키스)에서 나왔다. 막대 다발, 꾸러미

막대 하나는 약하지만, 다발로 묶으면 부러뜨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파시스트들은 . . . 어떤 하나의 막대도 다발의 결속을 깨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21》 444) 진영 내부는 파시스트적?

하나의 집단기억을 강요하는 역사관; 내부를 향해서는 파시스트가 되기 쉽다.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 없는 민족주의’의 문제; 박유하 교수

북한 이야기, 국가와 종교(21세기) 국가와 종교의 결합

“북한 정권은 광란적인 국가 종교(fanatical state religion)인 주체사상을 신민들에게 주입한다.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고대 한국의 전통, 한국인의 고유한 순수성에 대한 인종주의적 믿음,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deification)가 결합한 것이다. . . 김씨 일가는 역사 속의 어떤 신보다 더 열심히 숭배된다.(worship) . . . 북한의 주체사상은 핵 개발을 신성의 의무로 언명함.”(《21》 210-11)

자유주의 문제를 다루고 불교로 가겠습니다.

생명과학 vs. 자유주의

"중세 십자군 전사들은 삶의 의미가 신과 천국에서 온다고 믿었고, 현대의 자유주의자들(modern liberals)은 인생의 의미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온다고 믿

었다. 하지만 둘 다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delusional)" (《호데》 418)

개인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믿음

1. 나는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다. 즉 나는 부분이나 하부 시스템들로 분리할 수 없는 단일한 본질을 지니고 있다. . . 내 안의 깊은 곳에서 단 하나의 분명한 내적인 목소리를 발견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진정한 나이다.
2. 진정한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
3. . .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잘 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호데》 449)

생명과학의 반박문

1. 유기체는 알고리즘이고, 인간은 분리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dividuals) 즉 인간은 여러 알고리즘들의 집합으로, 단일한 내적 목소리 또는 단일한 나(single self)는 없다.(번역 수정, p. 450),
다른 알고리즘은 서로 대화도 안 한다. 다른 두 인생을 살 수 있다. 나치 대원들
2. 인간을 구성하는 알고리즘들은 자유롭지 않다. 이 알고리즘들은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유의지가 아니라 결정론적으로 또는 무작위적으로 결정을 내린다.(deterministically or randomly—but not freely).
3. 이론상으로 외부의 어떤 알고리즘이 나보다 나 자신에 대해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 (《호데》 450) 외부의 어떤 알고리즘은 정부일 수도 있고 수퍼 Ai일 수도 있다. 하라리는 빅브라더의 출현을 우려함.

민정국 교수님의 자유주의 이해

사회주의의 분배정의를 석기시대의 정신이라고 한 부분(미개화 vs. 문명)

“흥미로운 것은 사회주의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분배정의 또는 사회정의의 원천이다. 이는 석기시대의 정신이다. 사회정의는 나눔의 도덕, 연대감, 애착심과 애정과 같은 도덕을 전제한다. 이런 도덕의 근원은 인류학자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원시부족사회의 삶의 방식에서 진화한 것이다. 원시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수령과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무리를 지어 수렵과 채취를 하면서 나누어먹는 관계였다. 그들은 부족과 혈연으로 소규모 집단을 이루어 서로 도우면서 그리고 나누어 먹으면서 애정과 연대로 뭉쳤다. 이것이 부족 사회의 정신구조다.(Hayek)

이런 정신구조는 호모 사피엔스의 신경구조와 본능이 형성되면서 점진적으로 생성된 태도이다. 이런 태도를 구현한 분배제도 속에서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살았다. . .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회주의자다. 그 같은 석기시대 정신을 구현한 것이 사회주의 복지국가, 민족주의다.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행동하는 것, 이것도 본능의 소산이다. 좌파가, 대통령 탄핵으로 . . . 개화되지 못한 석기시대의 저인이 깔려 있다. .

연대감, 유대감 같은 이런 본능적 도덕을 억압하고 새로운 도덕이 생겨났다. 이 새로운 도덕이 개인존중(집단주의 배격), 돈놀이, 이윤의 인정, 낮모르는 사람들의 인격·재산존중, 낮모르는 사람들과의 교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맺는 계약의 충실성,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도덕 등, 정의를 구성하는 규칙이다. 이들은 “자유의 도덕”이다. 자유의 도덕은 인류가 원시적 삶을 접고 문명의 길로 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화적 진화의 결과는 질서의 확장이었다. 폐쇄되었던 부족사회가 열리고 점차 이방인으로 취급되었던 사람들과의 분업이 이루어졌다. . . 열린사회는 원시적인 석기시대의 정신을 구현한 폐쇄적인 도덕과 열린사회의 도덕이 그 자리를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폐쇄된 도덕을 밀어내고 열린사회의 도덕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결과다. 정의의 규칙은 본능의 소산도 아니요 이성의 소산도 아니다. 그것은 무의도적인 자생적 결과, 다시 말하면 문화적 진화의 결과다. 자유의 도덕이야말로 문명화된 정신이다. 좌파정권이 소규모 사회의 도덕을 대규모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열린 현대사회를 원시사회로 되돌리는 것, 문명화된 정신을 야만적인 정신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다. 그런 노력의 결과는 치명적이다. . . (《국가란 무엇인가》, pp. 546-548)

제일 큰 차이점은 스케일의 차이; 크다고 해서 물론 좋은 것은 아님
정의의 규칙: 본능도 이성도 아니라 자생적 결과, 문화적 진화의 결과,
자유는 자생적 질서: 가격기구, 행동규칙(p. 357)

H. Feldmann

“행동질서가 다른 그룹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면 그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더 잘 충족하여 인구증식의 기회가 클 것이다. . . 그 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더 빨리 성장할 것이다.”(민경국, 2018, 364에서 인용)

하이에크의 행동규칙: “느낌과 감정을 자기자신과 일치시키는지? 욕망/욕구, 느낌과 감정은 함께 가는 것이고, 구성원의 욕망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 자유의 보장인지? 느낌, 감정, 애착, 애정(욕정), 개인소유권, 자유는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음.

하라리: 인간에게 욕구/욕망을 선택할 자유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양성애자여서 異性과 결혼했다면 그게 무슨 자유행위인가? 출가야말로 자유?

하라리: self-knowledge(느낌은 자기가 아니다; 자기지식)

현대인이 석기시대 사람보다 자신을 더 잘 아는가?

하라리: 수렵채취인이 파라오 시대의 농업사회보다 더 행복했을 것으로 말함.

좌파를 비판하고 있음:

우파, 좌파 모두 느낌이 자신이라고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좌우파 시민 중생의 감정적 성격을 형성한 것.

오온 파잉의 시민 중생인 것은 마찬가지로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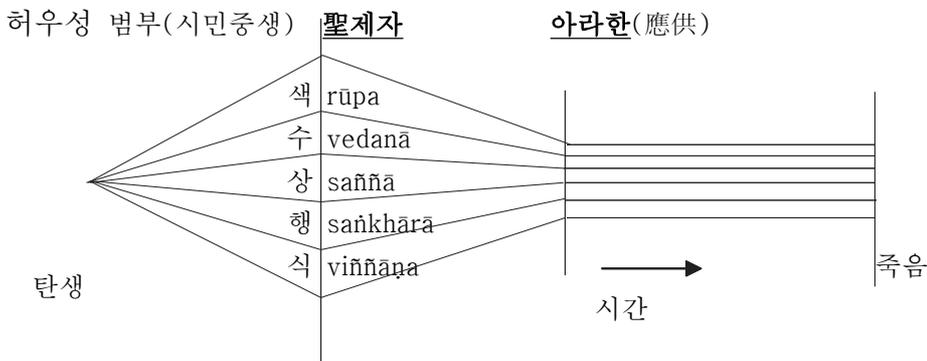
IV. 고타마 붓다(釋尊)

고타마 붓다(c. 563/480 - c. 483/400 BCE), 고타마 족 출신의 붓다(깨친 분)
 고타마는 석가 부족 내의 작은 씨족

1. 붓다의 五蘊무아설-독립적이고 영속적인 혼, 자아도 없다
2. 붓다의 지각 이론- 受에서 愛나 不愛(증오심)로 가는 길을 차단해야 함
3. 붓다의 12연기설- 자유의지가 없다

오온 무아설에 따르면, 신체, 욕망, 감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영혼이 나 자아는 허구다. 붓다에 따르면 하나의 '인격'은 오온(five aggregates)으로 이뤄져 있다. 그것은 아래와 같다.

개인은 五蘊(오온, heap, aggregates)의 덩어리
 그림 1



- a) 色 rūpa: 물체이지만 여기서는 신체 body
- b) 受 vedanā: 감각과 감정, 정서 sensation, affect, emotion, feeling, sensibility, sentiment, 苦受와 樂受, 不苦不樂受
- c) 想 saññā: 관념 ideation, 지각, (이미지 동반하는) 생각('이것은 빨간 색이다.'); 美女想, 無常想, 沙門想 samansaññā, 판단과 이미지가 함께 있음.
- d) 行 saṅkhārā: 의도, 의지, 조작(유위)적 행위 intention, will, 삶에로의 의지, 진화론의 말로 하면, 생존하고 개체를 번식시키려는 본능적 욕구
- e) 識 viññāṇa : “사람은 무엇을 感受하든 vedeti 그것에 대해 지각[想]하고, 무엇을 지각하든 지각한 것을 식별한다(또는 의식한다).”

識은 촉(감각)과 지각의 필수 요소-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의식이 있어야 지각이 가능하고, 주관적 경험 즉 낙수, 고수가 가능하다.

識은 내면적 공간이면서 공간에 생기는 정신적 이미지;

‘識이 모태에 들어간다-생명의 탄생’ ; 하나의 인격은 심신연결체(名色)

受는 느낌이나 감정에 가깝지만, 거의 언제나 생리적 변화도 수반하므로, 살아 있는 인간의 심신에서는 오온은 연동해서 움직인다. 따라서 신체의 떨림(情動, affect)과 감정이 과잉이면, 생각도 과잉이다. 범부가 거룩한 제자가 되어 불교 수행을 시작하자마자 축적의 과정은 역전되고 오온은 감소한다. 그가 아라한과(應供, 果)를 얻게 되면 오온은 정상 크기에 이른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호흡명상 같은 비파사나(觀). 부단히 변하는 오온 하나하나를 보아도, 전체를 보아도 불변의, 단일의 자아라고 할 것은 없다.

개별 시민 증생은 오온 과잉의 존재다. 서로 모방한다. 과잉인줄 모른다. 무지

그림 2 시민/증생의 지각이론, 시각 알고리즘, ‘나의 세계’가 생기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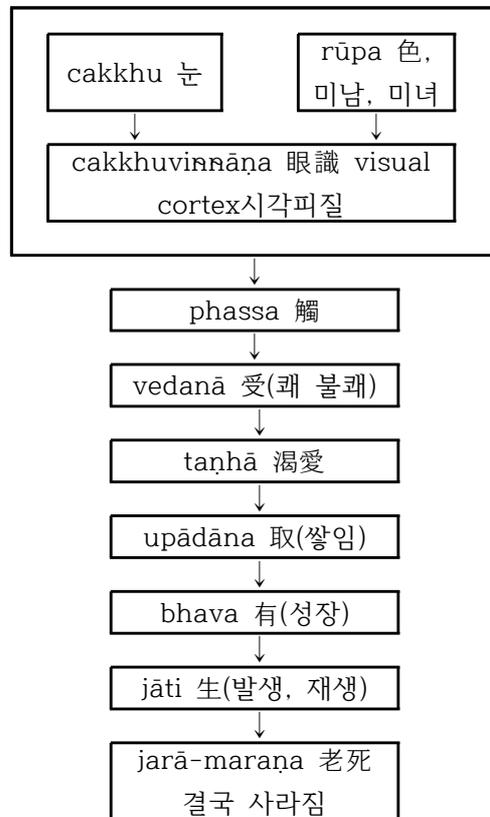


그림 1. 소위 ‘나의 세계’는 지각에서 생기함

눈/시각의 알고리즘: 다른 감각에도 적용됨

눈이지만, 귀, 코, 혀, 몸, 생각(眼耳鼻舌身意)도 마찬가지. 意도 감각기관
우리가 말하는 모든 세계(loka, 一切經)는 모두 여섯 감각 모드에서 나옴;

젊은 미녀를 보면 樂受라는 생화학적 쾌감과 좋은 감정; 이것들은 찰나적인 것, 이것을 반복하려는 맹렬한 욕망이 생긴다. 이것이 갈애; 일종의 생물학적인 진화론적 반응이지만 아주 위험하다. 안희정, 이윤택: 권력을 가진 남자에게 가장 위험.

이미 결혼했다면 젊은 여성/남성을 보고(觸) 느낌이 좋았다고 해도(樂受) 애타는 사랑[渴愛]으로까지 가지 말아야 한다.

설탕 잔뜩 발린 도넛을 보면 즐거운 느낌, 먹고 싶은 충동--

많이 먹으면 비만, 당뇨 등. (Robert Wright, *Why Buddhism is True*)

노사(老衰와 죽음), 좌절, 불만으로 끝이 나니 결국 고통.

알고리즘이란? “알고리즘은 계산할 때 따르는 방법이다.”(《호데》, p. 122), 하라리의 “알고리즘에는 의식이 없는 게 확실하다.”(《21》세기, p.70)

“지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데 반해 의식은 고통, 기쁨, 사랑, 분노처럼 어떤 것을 느끼는 능력이다.”(《21》 118)

12연기설: 무지/無明에서 출발한 알고리즘, 생화학적 알고리즘 더하기 알과 모든 시민 중생에게 적용되는 행동의 계산식. 2500년 전 붓다의 깨달음 내용 自說經(1)에 따르면,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해서 6년 동안 여러 스승을 만나고 고행하다가 설산에서 수행하면서 正覺을 성취; 그 이후 7일 동안 해탈의 즐거움 (vimuttisukham)을 누리면서 앉아 있었다. 7일이 지난 뒤 세존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때쯤 다음과 같은 순서로 緣起法(causality)을 생각하면서 거닐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즉, 무명의 緣으로부터 행이 있다.(avijjāpaccayā)” 소부경전, 자설경 1.1

원인을 알아야 사물을 제대로 아는 거다. 스피노자와 유사.

自說經, 초기경전, 영국, 일본제국의 유산

그림 3

1. Avijjā 無明 ignorance, primitive darkness

왜 본능적 욕망이지, 그건 어둠에 싸여 있어서 보통은 무명의 존재를 인지할 수 없다. 쾌의 추구가 행복이 아니다.

2. Saṅkhārā 行 activities, 의지, 업의 형성(력),

생존과 번식에 대한 본능적 욕망(전생의 행이 현생에도 이어짐)

三世兩重因果說에 따르면 여기까지 前生.

3. Viññāṇa 識 consciousness, 포괄적인 의미의 의식, 潛在의식, 現의식 모두

4. Nāmarūpa 名色 name and form, “정신성과 신체성” mentality and corporality 수태의 순간: 부모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요소물려받음

5. Saḷāyatana 六處(또는 六入) “여섯 가지 감각 양식들” the six sense-modalities, 눈, 귀, 코, 혀, 몸, 생각(의 대상은 관념들, 이미지)

6. Phassa 觸 감각-인상 sense-impression, 시각, 청각 등

7. Vedanā 受 feeling

8. Taṇhā [渴]愛 craving

9. Upādāna 取 또는 집[취]착clinging, 쌓임

10. Bhava 有 becoming(成長, 업의 존재와 行의 존재), 업과 행은 다음 생으로, 다음 날로 이어진다. 다음에 반복될 만한 크기로 모이면 그것이 유 여기까지가 今生, 오늘 저녁

보고 싶어 하는 힘-이것이 유이고, 유는 재생된다.

11. Jāti (再生 rebirth), 나도 생법, 같은 생법을 추구한다.

“한번 보고 두 번 보고(有) 자꾸만 보고 싶네”

미녀, 미남, 태극기나 촛불을 보면 낙수(즐거운 느낌)가 생긴

그것이 渴愛를 낳고, 강화됨[取]. 충분히 성장한다(유).

충분히 성장하면 같은 것의 재생을 요청함.

(生法은 같은 생법의 반복하는 힘). 생법은 곧 나의 심신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임에 나가게 되면 그 경험(소리, 색깔, 생각)은 내 심신에 쌓이고(취), 충분히 성장하고(有), 또 반복, 재생하게 된다.

왜 서초나 광화문에 갔지? 왜 그 남자와 결혼하지?

이미 축적된 경험인 有가 말의 목적이 된다.

목적합리성의 추구 곧 도구적 이성의 기능.(하버마스)

12. Maraṇa 死 death -촛불이든, 태극기든 무상함. 젊고 예쁜 여성 좌절, 고통의 순간이 온다. 憂悲苦惱를 경험.

12연기설의 첫 출발은 무엇인가?

무명이다. 어둠이다. 생존과 번식에 대한 욕구이지만 의식하지 못함.

行(행)은 생존/번식에 대한 욕구,

식: 행에 의존해서 의식이 일어난다.

(수, 촉, 애, 생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불만과 끝이 있다. 고통이 있다. 불만과 고통을 야기하기 쉽다.

12연기설의 順觀: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행을 조건으로 삼아서 식, 명색, 육 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流轉緣起

12연기설의 逆觀: 무명의 지멸로 말미암아(avijānirodha),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그치면 명색이 그치고, 6처가 없어지면 촉이, 촉이 없어지면 수 없어지고, 갈애가 ,,, . 취, 유, 생이 없어지면 노사가 없어진다.

還滅緣起

하라리의 알고리즘과는 달리, 시민 중생의 알고리즘 연기설은 의식 있는 알고리즘이다. 의식이 있다(meta-cognition). 축에서 애로 가는 길을 끊을 수 있다. (부처님은 여성을 보고 낙수도 생기지 않았을 것) 즉 逆觀도 존재한다.

끊을 수 있는 원초적 능력을 대승불교에서는 佛性(불성), 自性淸淨心

(낙수가 갈애에 이르지 않게. 비파사나 등의 명상 필요)
'거의' 무의식적인 알고리즘을 의식화하고 거기에 개입하는 것이 명상.
인과론과 자유의지의 문제, 不落因果보다는 오히려 不昧因果

V. 결론을 대신하여

1. 불교/원효에 원초적인 지식은 愛·不愛의 분별이다

하라리: 제국주의를 설명할 때, 사피엔스는 인간을 본능적으로 '우리'와 '그들'의 두 부류로 나눈다고 했다. 대승경전의 하나인 『大乘起信論』에서 말하는 최초의 지식 즉 七識도 '우리'와 '그들'의 분별. 신라의 원효(元曉 617~686).

8識의 존재를 말함. 이것이 바로 藏識, 인간의 모든 심적 작용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가 나오므로 의식의 창고와 같다고 해서 장식(storehouse consciousness), 창고의식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

무명업상無明業相, 무명(또는 不覺)에 의해 생겨난 업상, 욕망과 분노(欲瞋) 능견상(能見相, perceiving subject): 나, 우리 주관
경계상(境界相, world of objects): 저들, 대상

무명에서 욕망과 분노라는 최초의 움직임이 나왔고, 무명업상이 결국 주관을 세우고, 그 주관에 의지하여 대상이 생긴다. 8식이 갖는 이 세 가지 모습은 아주 미세하고 미묘하므로 三細相이라고 부른다.

藏識이 대상을 만나면 여섯 종류의 상[六種相]을 낸다.

『대승기신론』은 육종상중에 첫째: 七識이라는 지상智相인데, 지상은 보통 'the aspect of the discriminating intellect'로 영역되는 말로, 愛 不愛의 분별

시민 중생은 처음부터 무지 속에서 욕망과 분노를 갖고 있고, 그가 행하는 최초의 분별(智)은 애·불애의 분별이다. 대승기신론이나 원효에 따르면 중생에게는 지성과 감성의 구분이 없음. 하라리식으로 말하면, 애 불애의 분별은 진화론적 합리성(evolutionary rationality)이 된다. 이런 존재를 사피엔스(지혜있는 자)로 부른다면, 하라리가 지적한 것처럼 정말로 오만한 명칭.

'우리'와 '그들', '친문, 반문' '친조국과 반조국'; 원초적인 분별;

붓다에 따르면, 내 몸 속의 불쾌한 느낌이 특정 대상에 대해 분노나 증오로 나가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수동적인 행위다. 거기에는 이미 내 뇌가 만들어낸 스토리가 작동한 것, 즉 촉, 수, 애(증오)로 나가는 불교적 알고리즘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그 출발은 어둠이지만 우리의 뇌는 스토리로 분노와 증오를 정당화한다. 자유

는 不落因果가 아니다, 不昧因果다.

대승불교의 경우 오온 감소나 탐진치를 제거하기가 어려우므로 佛性이니 本覺, 自性淸淨心를 말함. 원효는 “假立佛性本覺等名”(大乘起信論別記, 은정희, p. 93-4)

왜 자성청정심을 잃었지? 忽然히 무명의 바람이 불어서 . .

우리가 시민 중생의 알고리즘을 벗어나는 길: 명상; 무한한 마음의 양성

《숫타니파타》의 〈자애〉(慈愛) 경: “흡사(yatha)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모든 생명에 대해 무량의 마음(mānasam aparimānam)을 일으키시오. 또 모든 세계에 대해 무량의 자애(mettam)를 일으키시오. 원한/분노 없이(averam) 敵意 없이(asapattam).(자애를 행하시오.)”(149~50)

이는 불가능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하라리는 반 이성주의자인가?

하라리가 자연선택의 힘을 내세우고, 감정은 진화론적 합리성?

자연선택의 힘에서 나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 ‘국가’를 자연선택의 힘에서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구절도 있다.

“우리 개인의 존재와 삶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다면 알고리즘보다, 아마 존보다, 정부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have to run) 그들보다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내가 ‘나 자신을 알기 위해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은 윤리적 규범이다. 이런 규범 제시는 알고리즘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암시한 것인가? 규범 제시는 감정, 이성, 본능의 기능?

어느 나라의 시민 중생이든 오온 과잉이어서 아라한은 아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나라마다 축-수-애/분노와 혐오/로 나가는 속도와 강도에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한국인은 빠르고 강하고 집단화되어 있다.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을까?

1. 삼권분립

2. 개인차원에서는 오온 감소를 위해 노력하자.

낙수가 갈망으로 가지 말아야 하고

고수가 분노와 혐오로 가지 않아야 한다.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

호흡명상

적용 사례 1

젊은 미녀를 보면 즐거운 느낌樂受라는 생화학적 쾌감과 좋은 감정

적용사례 2 정치현상

누군가는 조국이 장관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초동에 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조국에 반대하며 광화문에 간 사람을 만난다. 느낌이 나쁘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다. 苦受 dukkha vedana
 광화문에 간 사람은 서초동에 간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
 피차에 기분이 나쁘다. 그건 할 수 없다.
 그런데 안 좋은 느낌이 미움이나 증오, 혐오로는 나가지 말라는 것,
 증오, 분노, 혐오를 느끼면서 ‘수많은 생각-이야기’가 따라 나올 것. 정치, 역사도
 모르고, 저 무식한 나, XX; 저 쪽도 비슷할 것.
 그러면 또 생각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간다.

숨을 길게 들이쉴 때는 나는 이제 숨을 길게 들이쉬는다고 알아차린다.
숨을 길게 내쉴 때는, 나는 숨을 길게 내쉬는다고 알아차린다.
숨을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이제 숨을 짧게 들이쉬는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숨을 짧게 내쉬는다고 알아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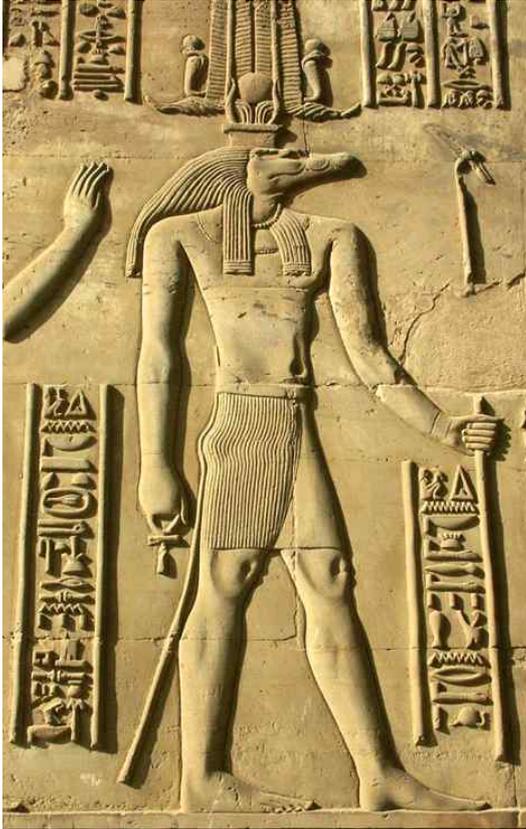
1. 계산의 폭;

자유주의자는 인간의 제한적인 계산력을 강조, 정부 개입을 비판.
 그래서 長期에 대한 계산을 미리 배제하는 것은 아닌지?
 F. Hayek의 한계 아닐까? 아주 치밀하지만 . .

2. 자유주의, 자유의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대의 승리자이기
 때문, 자유주의자는 따라서 개별 인간의 고통과 지구 운명의 책임자. 호모 데우스가
 되는 일에 대해, 지구적 생태의 균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눈앞의 과제와
 멀리 보이는 과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을까?

3. 허구라는 말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方便(upāya)을 연상하게 한다. 神이든, 佛
 性이든 이성이든, 자생의 힘이든 다 허구, 그런데 뭐든 개인의 고통과 지구의 생존
 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면 좋다.

1백년 뒤 어느 편이 더 허구적일까?: 소백신과 자유의 여신



장시간 감사합니다.